



# 옳고 그름 떠나 ‘한 바퀴 더 돈 도리’ 참구하길

##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옳도다, 옳지 않다

마곡보철 선사(錫杖)를 들고서 장경회회 화상의 회상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장경이 앉아있는 선상을 세 바퀴 돈 후에 석장을 한번 흔들고는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경이 말했습니다. “옳도다. 옳도다.” 선사가 다시 남전보원 화상에게 가서 똑같이 스님이 앉아

있는 선상을 세 번 돌고 석장을 한번 흔들자 남전이 말했습니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사실 장경이 옳다고 한 것도 마곡의 곱질에 빠진 것이요, 남전이 옳지 않다고 한 것도 마곡의 곱질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설두중현 선사는 옳다고 한 것과 그르다고 한 것이 모두 ‘틀렸다’고 착어(着語)한 바 있습니다. 장경은 왼쪽 눈이 반근이요 남전은 오른쪽 눈이 여덟 낱 밖에 되지 않습니다. 눈썹 사이에 피 문은 칼날을 간직하고 있긴 합니다만 세치 혀 위에서 바람과 우레를 일으켰을 뿐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눈은 선지식이었다면 그가 선상을 돌기 전에 먼저 삼십 방을 때려야 했습니다. 옳다 해도 옳을 것이

없고 그르다고 해도 참으로 그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옳빠미와 닳은 밤과 닳은 따라 공연히 갈라질 뿐입니다. 총림에 구구하게 시비가 일어날 때, 그걸 듣고서 망설이게 된다면 바로 해골 앞에서 귀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은 옳다고 하고 한 사람은 옳지 않다고 한 것을 듣고서는 분별하여 동의한다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략)

그렇다면 결제대중에 세이 산승이 묻겠습니다. 도대체 한 바퀴를 다시 돈 것은 어떤 장처(長處)가 있는 것입니까?

이번 한 철 동안 옳고 그름을 떠나 ‘한 바퀴 더 돈 도리’의 낙처(落處)를 잘 참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략)

### 시비의 소용돌이에 몸 던지지 말라



원담 스님  
덕속총림 수덕사 방장

삼세(三世)의 부처님과 모든 조사(祖師)들은 다만 마음을 밝히고 입을 끝낸 사람일 뿐이나라. 여기에는 시비도 미치지 못하고, 인연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며, 언어로도 미치지 못하나라.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나에게 한마디가 있으니 생각이 끊기고 반연(攀緣)을 잊었다. 교묘한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마음으로만 전할 수 있다” 했는데, 대중들이여! 무엇이 마음으로만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주장자 일타)

이것은 나무 끝에 바람이 지나가는 격이나라. 설령 한 조각 마음을 안다 해도 전할 마음조차 없는 것을 어찌 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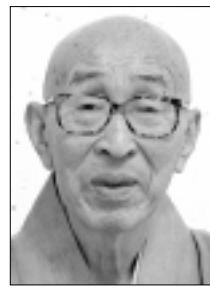
(중략)

대중들이여! 시비의 소용돌이에 몸을 던지지 말라, 앉은 자리에서 열기설기 그물을 퍼면 넝쿨에서 다시 넝쿨이 꼴이 꼴이라. 자고로, 자고(鶴)새는 깊은 꽃 속에서 우는 것을 알라!

부락부매상량아(不落不昧商量也)  
의전당입갈등과(倚前撞入葛藤?)

떨어지지 않음과 어둡지 않음을 헤아린다면  
어전히 시비 속에 빠져 들리라.

### 모든 모습이 본래 제자리인 것을



지종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춘심원락정무애(春心院落淨無埃)  
늦은 봄날 절간은 깨끗도 하고  
좌의한면심은당(坐倚閑眠心穩當)  
좌선하기 낮잠 자기 꼭 알맞네  
송창진일무진문(松窓盡日無塵門)  
항상 방장실에는 시끄럽이 없고

법법본래안분위(法法本來安本位)  
만물이 제자리에 놓여 있다

구명구리불여한(求名求利不如閑)  
명리를 찾아 허둥대도 한가함만 못하고

항상기관하족도(向上機關何足道)  
항상의 기관 따위 무엇 그리 대단한가

욕식출승친절처(欲識出僧親切處)  
이 몸의 얻은 불법 알고 싶다면

일명순의과백년(一領 鶩衣過百年)  
일생 가는 이 한 벌의 누더기 보라 하리

요즘 세간도 어지럽지만 그에 못지않게 절간도 시끄러움이 있다. (중략)

모든 모습이 본래 제자리인데 또 무엇을 찾는다는 것인가! 있는 것을 손에 쥐고 찾아 헤매는 모습은 우스운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히는 근본 원인이 것이다.

본래면목인 자성을 밝히는데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한가한 마음과 한가한 몸짓, 그 자체가 자성이며 자성 속에서 노닐어야 할 것이다.

### 계정해 삼학을 부지런히 닦으세요



일명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상략)

오늘 결제한 총림대중 가운데는 초참자(初參者)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발심출가해 일대사(一大事)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안을 참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대사는 무엇인가?

나고 죽는 생사대사(生死大事)인 것입니다.

생사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으니, 숨을 들어 쉬고 내쉬는 것은 소생사(小生死)요, 잠들고 잠깨는 것은 중생사(中生死)며, 나고 죽는 것은 대생사(大生死)입니다.

우리 중생은 숨 들어 쉴 때와 내쉬는 때가 다르고, 또한 잠드는 것도 모르고 잠깨는 것도 모르며, 태어날 때 어디서 왔는지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니, 숨에 취해서 살다가 꿈 속에서 죽는 ‘취생몽사(醉生夢死)’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천성(天性)의 궤도(軌道)인 계정해(戒定慧) 삼학(三學)을 부지런히 닦아야 합니다.

고인(古人)께서 말씀하시기를, 계(戒)는 그릇됨을 마고 악을 그치게 하여 삼악도(三惡道)를 면하게 하며, 정(定)은 진리와 하나 되어 산란함을 거두어들여 육욕(六欲)에서 벗어나게 하며, 혜(慧)는 법(法)을 알기를 공(空)으로 보아 묘하게 생각을 벗어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마음자리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계(自性戒)이고, 마음자리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정(自性定)이며, 마음자리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혜(自性慧)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대중들은 계정해를 바탕으로 공안을 참구하면 머지않아 계정해서 생사를 해탈할 것입니다. (하략)

### 달마가 일조주장자한 까닭은?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 태고총림 방장

(상략)

형주(衡州) 육왕산(育王山)의 홍통 선사(弘通禪師)에게 어느 날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선사(禪師)의 가풍(家風)입니까?”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온몸에 닳은 것의 깊어지지 않는 나”

날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사께서는 너무도 가난하십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시설(施設, 총림대중을 지도하고 이끄는 것)하시겠습니까?”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집안의 형편대로 따르리라 나로서도 별수 있겠는가?”

총림대중 여러분! 달마(達磨)가 서래(西來)하여 수휴척리(手携隻履)하고 일조주장자(一柱拄杖子)한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조고사(六朝古寺)의 조계가풍(曹溪家風)이 날로 쇠미(衰微)하니 조주(趙州)의 삼봉(三棒)이 어디를 향해 가야합니까?

태고의 법승이여, 출가남자여, 선암의 대중이여 각성(各成)하시오. 생각해보면 막급(莫覓)하고 또 막급합니다. 인무원견(人無遠見)이면 필유근우(必有近憂)입니다. 사람이 멀리 보는 눈이 없으면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근심이 생긴다

(중략)

분별시비는 집착의 원인이며 참법(寂然)을 가로막는 마구니입니다.

총림대중 여러분은 금년 하안거 기간동안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진일보(進一步)하는 절박(切迫)한 심정으로 모두가 몸을 던져 주춧돌을 다시 세우고 기둥과 대들보를 올려 육조(六朝)의 활인가풍(活人家風)을 되살리는데 노력하십시오. (하략)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비구니회 창립 및 임원 취임법요식

증명 : 종 정 봉 해 대종사  
총무원장 지 공 종 사

비구니 회 장 : 법 광  
부회장 : 정 룰  
고 문 : 혜 신 지부장 : 보 현  
총무국 : 지 현 교무국 : 자 혜  
호법국 : 선 광 포교국 : 지 완  
섭외국 : 천 도 사업국 : 성 수

- 다 음 -

- 1)일 시 : 2007년 6월 12일(음 4 . 27) 화요일 오전 11시
- 2)장 소 : 대구 법성사(대구 동구 능성동 47-1)
- 3)복 장 : 스님은 가사장삼 / 법사는 법사복
- 4)준비사항 : 당일 오전 10시 40분까지 입장완료
- 5)연 락 처 : 총무원 (02)998-8161,2  
법성사 (053)986-8088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 http://ilbung.org )  
전화 : (02)998-8161,2 서울 강북구 수유 5동 440-27/ 엄지빌딩 4층